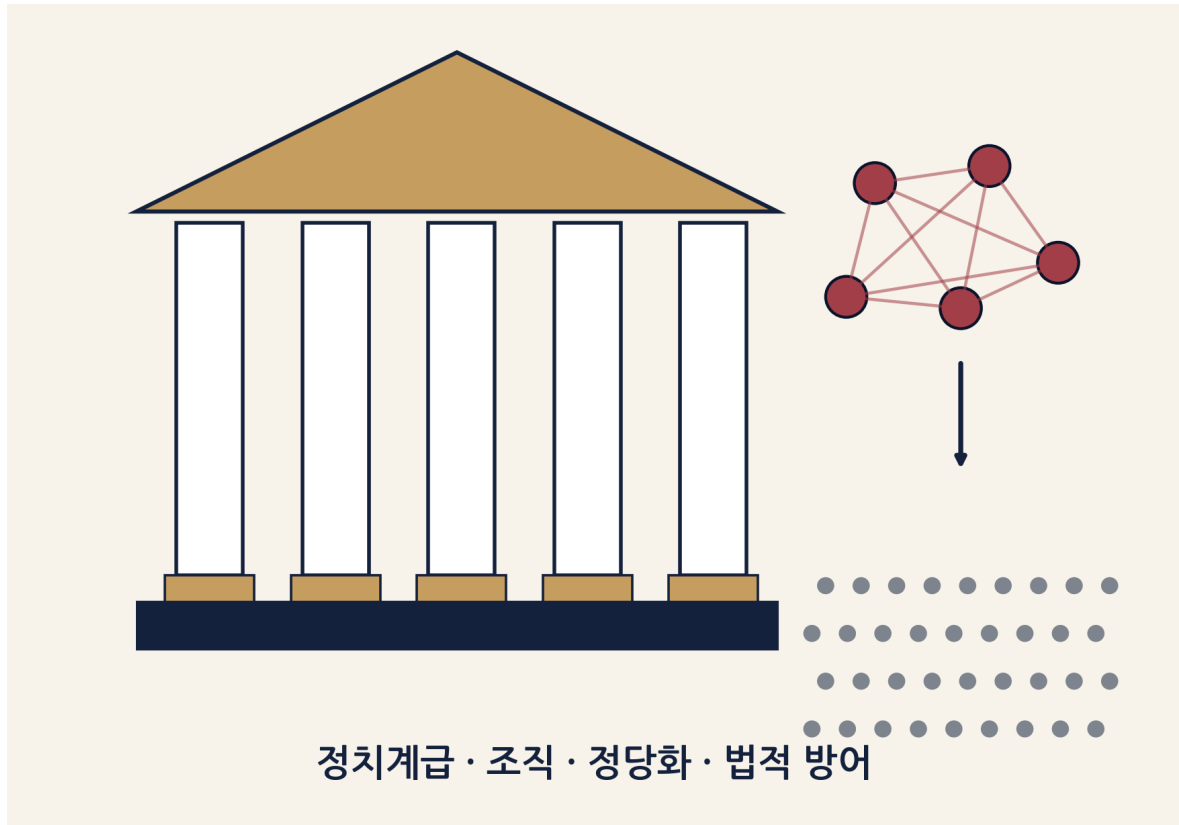


가에타노 모스카 정치이론

정치계급, 조직된 소수, 정치적 공식, 법적 방어와 현대 권력구조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발행일: 2026년 8월 1일

본 문서의 삽화와 도식은 보고서의 개념 설명을 위해 새로 제작한 원본 인포그래픽이다.

보고서 개요

가에타노 모스카(1858-1941)는 현대 엘리트이론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출발점은 단순하지만 급진적이다. 헌법이 군주정, 공화정, 민주정이라고 부르는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통치 기능은 언제나 비교적 소수의 조직된 집단이 수행한다. 그는 이 집단을 정치계급 또는 지배계급이라고 불렀다. 모스카의 관심은 “소수가 지배한다”는 도덕적 찬반보다, 어떤 소수가 어떤 조직·자원·제도·정당화 논리를 통해 지배하며, 그 권력이 어떻게 개방되고 제한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었다. [1][2]

이 보고서는 모스카의 이론을 여섯 축으로 재구성한다. 첫째, 정치계급·조직된 소수·비조직된 다수·정치적 공식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지배계급의 충원과 폐쇄, 엘리트 교체, 법적 방어를 하나의 이론 구조로 연결한다. 셋째, 파레토·미헬스·베버·마르크스·그람시·밀스·달과 비교한다. 넷째, 현대 정당·관료·사법·금융·언론·빅테크·전문가 네트워크에 적용한다. 다섯째, 민주주의·계급·성별·인종·식민주의 관점에서 한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열 가지 핵심 명제와 실무형 권력분석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핵심 판단

모스카는 과두제의 존재를 불가피한 사실로 보았지만, 무제한적 과두제를 규범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그의 자유주의적 결론은 “엘리트를 제거하라”가 아니라 “엘리트의 경쟁·충원·분산·법적 통제를 제도화하라”에 가깝다. 따라서 모스카는 과두제 옹호자라기보다 권력 집중의 구조적 위험을 진단한 현실주의적 자유주의자로 읽는 편이 더 정확하다.

목차

1. 핵심 개념: 생애, 저작, 정치계급, 조직된 소수, 정치적 공식
 2. 이론 구조: 충원과 재생산, 개방과 폐쇄, 법적 방어, 민주주의
 3. 주요 사상가와의 비교: 파레토·미헬스·베버·마르크스·그람시·밀스·달
 4. 현대 정치 적용: 정당·관료·사법·금융·언론·빅테크·알고리즘 권력
 5. 비판과 한계: 일반화, 계급·성별·인종·식민주의, 민주적 책임성
 6. 종합 평가: 핵심 명제 10개와 모스카식 권력분석 체크리스트
- 부록: 핵심 용어 사전 및 참고문헌

1. 핵심 개념

1.1 생애와 시대적 배경

개념 정의. 모스카는 1858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태어나 법학을 공부했고, 헌법학·정치사상사를 가르쳤으며 언론인과 공직자, 의원과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탈리아 통일 이후의 취약한 의회정치, 지역주의, 후견주의, 관료제의 성장, 사회주의와 대중정치의 부상,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가 파시즘의 압력에 직면하는 시대를 경험했다. 그의 이론은 추상적 철학보다 실제 정치조직의 작동을 관찰하려는 “현실주의 정치과학”의 성격을 띤다. [2][3]

실제 맥락.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의회는 형식상 대표제였지만, 제한된 선거권·지역 엘리트·행정관료·정치적 거래가 실제 권력배분을 좌우했다. 모스카는 이 현실을 통해 “국민 전체가 통치한다”는 민주주의의 공식 언어와 “소수의 조직가들이 통치한다”는 사회학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문제 삼았다. 그는 1884년 의회정부 비판서에서 출발하여 1896년 『정치학의 요소들』에서 정치계급 이론을 체계화했고, 1923년 제2판에서 자유주의·민주주의·엘리트 충원 문제를 확장했다. [1][2]

1.2 주요 저서의 집필 목적과 핵심 논지

『의회정부론』(1884)	이탈리아 의회주의의 형식과 실제 권력작용의 차이를 비판	대표제에서도 후보선정·조직·관료·지역 후견망이 소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한다.
『정치학의 요소들』(1896; 1923 증보)	정치현상을 법률적 명칭이 아니라 경험적·비교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정치과학 수립	모든 정치사회에는 통치 소수와 피통치 다수가 있으며, 지배계급의 구성·조직·정당화·교체가 체제 성격을 결정한다.
『지배계급』(영역 1939)	『정치학의 요소들』을 영어권에 소개한 편집·번역판	정치계급, 정치적 공식, 봉건적·관료적 조직, 법적 방어, 대표정부의 미래를 종합한다.

『지배계급』은 별개의 원저라기보다 『Elementi di scienza politica』의 영어 번역·재구성판이다. 영어판은 한나 D. 칸이 번역하고 아서 리빙스턴이 편집·서문을 붙였다. 따라서 두 제목을 서로 다른 이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1]

1.3 정치계급, 지배계급, 조직된 소수, 비조직된 다수

정치계급 political class	국가의 주요 결정을 만들고 집행하며 통치조직을 운영하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집단	지배계급의 정치적·조직적 핵심. 공직자뿐 아니라 정당조직가, 관료, 군·사법 지도부, 영향력 있는 중개자를 포함할 수 있다.
지배계급 ruling class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배·통치 기능을 수행하는 소수와 그 보조층	정치계급과 대체로 겹치지만, 넓게는 지배를 지탱하는 경제·지식·종교·행정의 보조 엘리트까지 포괄한다.
조직된 소수 organized minority	공동 목표, 지휘체계, 정보, 역할 분업, 지속적 조직을 가진 소수	수적 열세를 조직적 우위로 전환하여 국가기구와 집단행동을 통제한다.
비조직된 다수 unorganized majority	규모는 크지만 이해가 분산되고 상시적 조정기구가 부족한 대중	개별 구성원은 조직된 소수 전체와 맞서기 어렵다. 다만 노조·정당·운동으로 조직될 경우 새로운 엘리트와 대항조직을 형성한다.

모스카의 “계급”은 반드시 생산수단 소유에 의해 정의되는 경제계급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 통치 기능과 조직적 지위를 기준으로 한 정치사회학적 범주다. 부와 재산은 중요한 정치적 힘이지만, 군사력·관료적 전문성·종교적 권위·법률 지식·조직능력도 지배계급 진입의 기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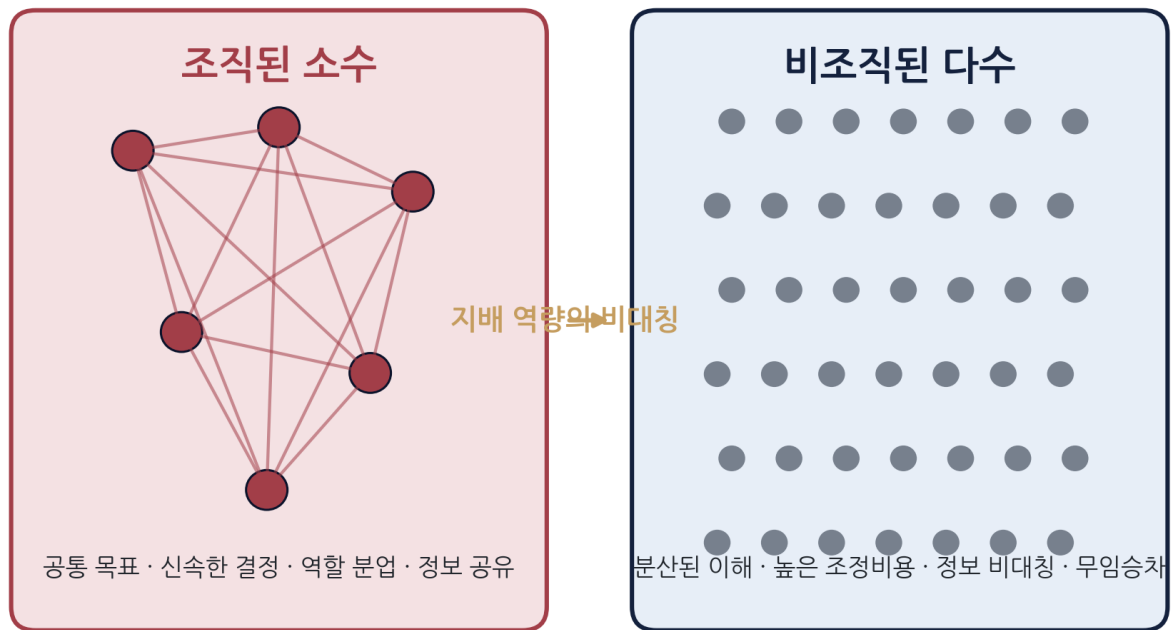


그림 1. 조직된 소수와 비조직된 다수: 수보다 조정능력이 정치적 우위를 만든다.

1.4 조직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유

조직력	작은 집단은 회의·합의·역할분담·규율을 유지하기 쉽다.	정당 공천위원회,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기업 이사회
정보	전문정보와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의제설정과 타이밍을 좌우한다.	관료의 규제정보, 정보기관의 보고, 플랫폼의 이용자 데이터
지도력	책임소재와 명령계통이 분명해 신속한 행동이 가능하다.	선거캠프 지휘부, 위기대응본부, 군 지휘체계
자원	재정·시간·전문가·법률지원·홍보수단을 집중할 수 있다.	대형 후원자, 로비 네트워크, 대기업 정책팀
제도 통제	법률·예산·인사·허가·강제력의 관문을 장악한다.	행정부·의회 지도부·사법·규제기관
네트워크	엘리트 간 반복거래와 인적 이동이 신뢰와 협조를 만든다.	회전문 인사, 동문·전문직 네트워크, 싱크탱크
내부 결속	외부 경쟁자에 대응할 때 내부 갈등을 일시적으로 억제한다.	정당의 당론, 업계 공동 로비, 관료조직의 조직방어

중요한 점은 다수가 본질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대중정당, 사회운동, 디지털 커뮤니티로 조직되면 그 내부에서 대표자·조직가·전문가가 출현한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통치와 협상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된 소수다. 모스카에게 대중정치의 핵심은 “엘리트의 소멸”이 아니라 “어떤 엘리트가 대중을 조직하고 대표하는가”이다.

1.5 정치적 공식(political formula)

개념 정의. 정치적 공식은 지배계급의 권력을 도덕적·법적·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원리와 서사다. 통치자는 물리력만으로 장기간 지배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권력이 신성한 질서·민족의 운명·국민의 의사·법의 명령·계급해방·혁명의 성과 등 더 높은 원리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모스카는 이것을 단순한 사기나 선전으로 축소하지 않았다. 정치적 공식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공유하는 신념, 감정, 역사적 기억, 제도적 습관에 뿌리내릴 때 실제 통합력을 갖는다. [1]



정치적 공식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회의 신념·감정·제도와 결합된 지배의 정당화 언어이다.

그림 2. 정치적 공식: 지배의 사실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당성의 언어로 변환한다.

종교	권력은 신의 뜻·성스러운 전통·종교법에서 나온다.	신권군주제, 국교체제, 종교지도자의 승인. 통치복종을 신앙의 의무와 결합한다.
민족주의	지배집단은 민족의 생존·통일·영광을 대표한다.	전쟁·독립·국가건설기에 엘리트가 자신을 민족의 수호자로 제시한다.
민주주의	권력은 자유선거와 다수의 동의에서 나온다.	선거는 엘리트 경쟁과 교체를 정당화하지만 후보선정·정책설계는 조직된 소수가 담당한다.
법치주의	권력행사는 일반적 법률과 절차에 구속된다.	법원·의회·행정절차가 권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 지배를 제한한다.
사회주의	권력은 노동계급·평등·사회적 소유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한다.	당과 국가관료가 계급해방의 대리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국민주권	국가권력의 최종 근거는 국민 전체의 주권이다.	헌법·국민투표·대표기관이 통치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수행한다.

분석상의 구분

정치적 공식은 “거짓 이데올로기”와 동일하지 않다. 하나의 공식은 실제 신념과 제도적 성과를 포함할 수 있다. 분석자는 그 공식이 ① 누구의 권력을 정당화하는지, ② 어떤 감정과 기억에 호소하는지, ③ 실제 권력배분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④ 반대세력도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2. 이론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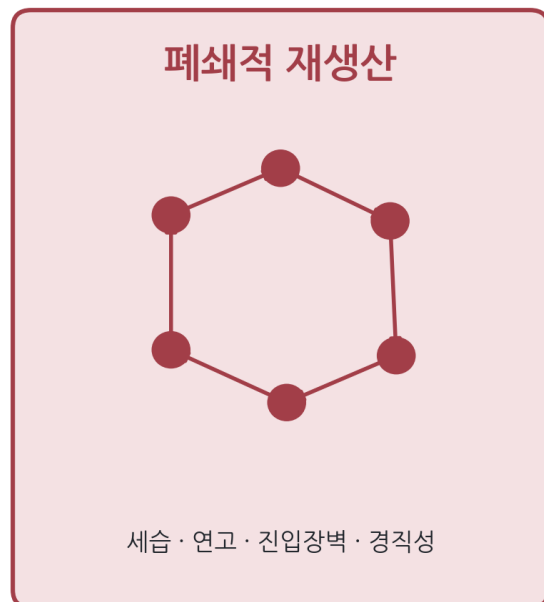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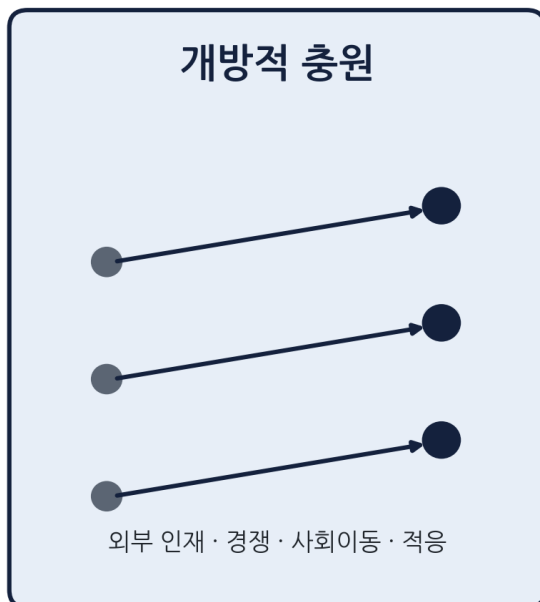
2.1 지배계급의 구성: 최고층과 보조층

모스카의 지배계급은 단일하고 완전히 동질적인 카스트가 아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핵심 지휘권을 쥔 최고층이 있고, 그 아래에는 행정·군사·법률·재정·종교·교육·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제2층” 또는 중간층이 존재한다. 대규모 정치조직은 소수의 최고지도자만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관료·전문가·지역 지도자·조직 중개자가 지배의 일상적 기반을 이룬다. 이 중간층은 지배계급의 인재 풀, 정책 전달망, 사회적 완충지대이기도 하다. [2]

이 구조는 현대 국가에서 특히 분명하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교체되어도 고위공무원, 법률가, 예산전문가, 중앙은행·규제기관 인력, 정당 사무조직, 지방정부, 정책연구기관이 연속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권력은 정상의 개인이 아니라 “지휘층-보조엘리트-조직기구”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

2.2 충원, 재생산, 세습, 개방성과 폐쇄성

세습·가문	가족, 재산, 교육, 명망, 네트워크가 지위를 다음 세대로 이전	경험과 조직연속성	능력과 무관한 특권, 사회적 폐쇄, 정당성 약화
선거·경쟁	선거, 당내경선, 공개경쟁을 통해 지도자를 선발	교체 가능성, 대중동의	공천권·자금·미디어 접근이 경쟁을 제한
관료적 선발	시험, 경력, 전문자격, 조직승진	전문성, 예측가능성	자기복제, 기술관료주의, 내부자 편향
공동선발(co-optation)	기존 엘리트가 새로운 구성원을 선택·흡수	안정적 적응, 반대세력 통합	폐쇄적 인맥, 순응주의, 책임성 부족
사회운동·혁명	기존 질서 밖의 조직가와 지도자가 권력에 진입	새로운 이해와 가치의 대표	새로운 혁명엘리트의 독점과 관료화



모스카의 핵심 규범: 지배계급은 존재하되, 새로운 사회세력의 유입과 제도적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림 3. 개방적 충원과 폐쇄적 재생산. 엘리트의 존재보다 진입경로의 구조가 체제의 적응력을 좌우한다.

모스카는 지배계급에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귀족적 경향은 권력과 특권을 기존 구성원과 후손에게 고정하려 하고, 민주적 경향은 하층과 외부집단에서 새로운 인재를 끌어올린다. 어떤 체제도 두 경향 가운데 하나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지나친 개방은 경험과 연속성을 파괴할 수 있고, 지나친 폐쇄는 사회적 화석화와 폭발적 교체를 부

른다. 안정적인 자유정은 기존 제도의 기억과 새로운 사회세력의 진입을 결합해야 한다. [1][2]

2.3 지배계급 폐쇄가 초래하는 붕괴

- 경직성: 새로운 기술·산업·세대·지역의 지식이 의사결정에 들어오지 못한다.
- 부패와 사유화: 공적 직위가 가문·파벌·기업의 사적 자산처럼 운용된다.
- 선발의 역전: 능력보다 충성·연고가 중요해져 조직의 실제 수행능력이 떨어진다.
- 정당성 위기: 지배의 정치적 공식과 실제 기회구조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
- 대항엘리트의 성장: 배제된 전문가·기업가·운동가·지역 지도자가 별도의 조직과 서사를 구축한다.
- 급격한 교체: 점진적 충원이 막히면 혁명·쿠데타·포폴리즘적 돌파처럼 비용이 큰 방식으로 엘리트가 교체될 수 있다.

따라서 엘리트 순환은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니라 체제의 정보처리와 적응능력이다. 개방된 선거, 교육기회의 확대, 공직의 공개경쟁, 언론의 감시, 독립적 시민사회는 모두 지배계급을 없애지 않지만, 지배계급의 폐쇄성을 낮추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2.4 법적 방어(juridical defense)

개념 정의. 법적 방어는 개인과 사회세력이 다른 개인·집단·국가기구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호받도록 만드는 법률·관습·도덕·절차·기관의 복합체다. 영어판 서문은 이를 “법에 의한 정부와 적법절차”에 가까운 개념으로 설명한다. 핵심은 좋은 통치자의 선의가 아니라, 공격적 사회세력들이 상호 견제되고 권력행사가 일반규칙에 묶이는 구조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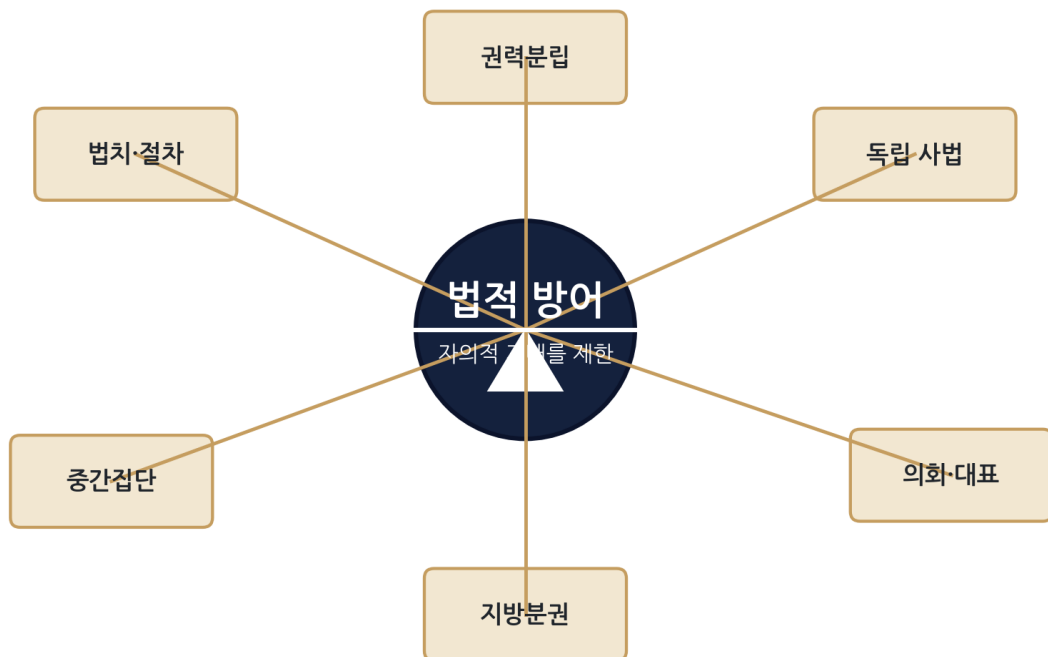


그림 4. 법적 방어: 단일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복수의 사회세력과 제도의 균형으로 자의성을 제한한다.

모스카가 제한정부·권력분립·의회·법치·지방분권·중간계층을 중시한 이유는 엘리트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소수의 존재가 불가피하다면, 자유의 조건은 그 소수가 무제한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다른 소수와 조직이 견제하는 데 있다. 독립된 법원, 경쟁정당, 지방정부, 직능단체, 언론, 재산과 교육을 가진 중간층은 권력중심을 다원화한다. 법적 방어의 수준은 헌법 문구보다 실제로 권력자도 절차와 판결에 구속되는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이 점은 현대의 “정책 포획(policy capture)” 문제와도 연결된다. OECD는 불투명한 로비, 정치자금, 회전문 인사, 정보비대칭이 공공정책을 특정 이해집단에 유리하게 반복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모스카식으로 말하면, 법적 방어는 지배계급을 부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조직된 특수이익의 우위를 투명성·경쟁·책임성으로 제한하는 장치다. [10][11][12]

2.5 민주주의 비판과 자유주의 옹호

모스카는 “국민이 직접 통치한다”는 순수한 다수지배론을 사회학적 허구로 보았다. 대규모 사회에서는 의제설정, 후보선정, 법안작성, 행정집행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은 소수의 지도자와 전문가를 낳는다. 선거는 이 사실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와 대표제는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들은 경쟁하는 정치계급을 만들고, 지배층의 충원을 넓히며, 대중이 통치자를 평화적으로 교체하고 반대세력이 합법적으로 조직될 통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모스카의 민주주의 비판은 “대중에게 권리를 주지 말라”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로운 언론, 의회, 지방자치, 결사, 공개경쟁, 독립사법을 통해 여러 조직된 소수가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가깝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매 순간 직접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다수의 동의와 참여를 둘러싸고 복수의 엘리트가 경쟁하고 법에 구속되는 체제로 재정의된다.

2.6 과두제 옹호론인가, 현실주의적 자유주의인가

과두제 옹호론	소수지배를 보편적·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대중주권의 수사를 폭로한다.	권력 불평등을 자연화할 위험이 있으며 민주적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다.
현실주의적 자유주의	엘리트의 경쟁·개방·견제, 법치와 사회세력의 균형, 대표정부의 보존을 중시한다.	권력의 실제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자의적 집종을 억제하려는 제도론으로 읽을 수 있다.
종합 판단	기술적 명제(소수 통치)와 규범적 명제(법적 방어)를 분리해야 한다.	모스카는 엘리트 없는 민주주의보다 통제되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단순한 지배찬양보다는 제한정부론에 가깝다.

3. 주요 사상가와의 비교

3.1 비교표

모스카	정치계급·조직된 소수	조직, 국가기구, 자원, 지식, 네트워크	개방적 총원과 귀족적 폐쇄의 긴장	정치적 공식으로 지배를 정당화	조직화하면 대항엘리트 형성	경쟁·법치·대표제가 자유를 보호
파레토	통치엘리트와 각 영역의 상층	심리적 잔기, 기술, 책략과 강제	여우형·사자형 엘리트의 순환	파생물이 행동을 합리화	감정과 비논리적 행동에 좌우	민주주의도 엘리트 지배의 한 형식
미헬스	정당·노조의 지도부	전문성, 정보독점, 조직의 기술적 필요	지도부 교체 후에도 과두화 반복	조직목표가 지도부 보존을 정당화	대규모 조직일수록 지도자에게 의존	대중정당도 과두제의 철칙을 피하기 어려움
베버	정치지도자·관료·정당기구	합법적 권위, 전문지식, 행정수단	선거·카리스마·관료경력	전통·카리스마·합법적 정당성	지도자를 선택하나 관료제에 의존	의회와 지도자 경쟁으로 관료지배를 통제
마르크스	경제적 지배계급	자본소유, 생산관계, 국가와 이데올로기	계급투쟁과 생산양식의 변동	물질적 이해를 보편이익처럼 제시	피지배계급이 계급의식과 조직을 획득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형식적 평등

그람시	지배블록과 유기적 지식인	국가의 강제 + 시민사회의 동의	진지전과 대항헤게모니	상식과 도덕적 지도인 헤게모니	대항헤게모니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시민사회와 헤게모니 투쟁의 질이 중요
C. 라이트 밀스	기업·정치·군사의 권력 엘리트	대규모 조직의 지휘직과 인적 순환	기관 간 회전과 상층 네트워크	공식 민주수사와 실제 결정권의 괴리	대중사회 속 정보·조직력이 약화	다원주의보다 상층의 구조적 집중을 강조
로버트 달	경쟁적 이해집단과 지도자	분산된 자원, 선거, 결사, 제도적 접근	선거와 쟁점별 연합을 통한 교체	공개경쟁 규칙과 민주적 정당성	여러 집단을 통해 영향력 행사	다원적 경쟁은 실질적 통제를 제공

3.2 모스카와 파레토

두 사람 모두 법적 형식 뒤의 소수지배를 분석하고 엘리트의 교체를 중시했다. 차이는 설명의 초점에 있다. 모스카는 조직, 정치기구, 사회세력, 충원규칙을 강조한다. 파레토는 인간행동의 비논리성, 심리적 성향, “여우형” 책략과 “사자형” 강제의 교대에 더 관심을 둔다. 모스카의 정치적 공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정당화 원리라면, 파레토의 파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감정과 잔기를 논리적으로 꾸미는 언어에 가깝다. 규범적으로도 모스카가 법적 방어와 자유주의 제도를 더 분명히 옹호한다.

3.3 모스카와 미헬스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은 모스카의 조직된 소수 논리를 대중정당과 노동운동 내부에 적용한다. 조직이 커질수록 전문지도자, 상근관료, 재정과 명부의 통제자가 등장하고, 지도부는 조직의 원래 목적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하게 된다. 모스카는 정치사회 전체의 지배계급을 분석하는 반면, 미헬스는 조직 내부의 지도자·회원 관계를 더 미시적으로 해부한다. 모스카의 개방적 충원과 법적 방어는 미헬스의 비관론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제공하지만, 과두화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3.4 모스카와 베버

베버의 관료제론은 모스카의 정치계급을 현대화한다. 전문지식, 문서, 직업적 훈련, 행정수단의 집중은 관료에게 지속적인 권력을 준다. 선출된 지도자는 정당성을 갖지만, 정책을 실행하려면 관료조직에 의존한다. 모스카가 조직된 소수의 보편성을 말한다면, 베버는 근대 합리화가 왜 관료적 소수를 특별히 강력하게 만드는지 설명한다. 두 사람 모두 의회와 정치지도자 경쟁이 관료제의 자기확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지만, 베버는 정당성 유형과 책임윤리, 카리스마의 역할을 더 정교하게 구분한다.

3.5 모스카와 마르크스: 정치계급과 경제적 지배계급

핵심 차이. 마르크스에게 지배계급의 기본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생산관계에서의 위치다. 국가와 지배이념은 대체로 그 물질적 지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모스카에게 지배계급의 기본 기준은 통치조직에 대한 접근과 지휘능력이다. 부는 정치권력의 강력한 원천이지만, 군사·관료·법률·종교·지식의 조직도 독자적 권력기반이 될 수 있다.

누가 지배하는가	국가기구와 정치조직을 운영하는 정치계급	생산수단을 소유·통제하는 경제적 지배계급
국가와 경제의 관계	상호의존적이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국가엘리트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국가는 계급관계의 산물이자 부르주아 질서의 보장자라는 경향이 강하다.
권력자원	조직, 직위, 군사력, 법률지식, 관료정보, 부, 사회적 명망	자본, 소유, 노동통제, 축적과 시장지배
갈등 구조	지배계급 내부 경쟁, 신규 엘리트, 국가와 사회세력의 균형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구조적 계급투쟁
변화 방식	충원·공동선발·제도개혁·혁명 등 다양한 엘리트 교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계급투쟁과 혁명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모스카식 분석은 두 권력을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경제엘리트는 정치자금·고용·투자·언론소유·로비를 통해 정치계급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국가관료·군·사법부는 강제력과 법적 권한을 보유한다. 어떤 시기에는 경제엘리트가 국가를 포획할 수 있고, 다른 시기에는 국가엘리트가 자본을 규제·동원·국유화할 수 있다. 분석의 대상은 “누가 본질적으로 우위인가”라는 단일 답보다, 두 엘리트가 어떤 인사·정보·재정·법률 네트워크로 결합하거나 충돌하는가이다.

3.6 모스카와 그람시

모스카의 정치적 공식과 그람시의 헤게모니는 지배가 강제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난다. 그러나 그람시는 동양의 시민사회, 교육, 언론, 종교, 문화, “상식” 속에서 생산되는 장기적 과정임을 더 깊게 설명한다. 또한 피지배 집단이 대항헤게모니와 유기적 지식인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블록을 구성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모스카에게 대중의 조직화는 새로운 정치계급을 낳지만, 그람시에게는 사회관계와 문화적 지도 자체를 변형하는 집단적 실천의 가능성이 더 크다.

3.7 모스카와 밀스, 달

밀스는 모스카의 질문을 20세기 미국의 대규모 조직에 적용하여 기업·연방정치·군부의 상층이 인적 이동과 공동 이해를 통해 결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달은 도시정치와 쟁점별 의사결정을 관찰하며, 자원이 불평등해도 단일 엘리트가 모든 영역을 독점하지는 않고 여러 집단이 경쟁한다고 보았다. 모스카는 두 입장 사이의 분석틀을 제공한다. 사회에는 언제나 정치계급이 있지만, 그 정치계급이 단일하고 폐쇄적인지, 여러 부문 엘리트로 분산되고 경쟁적인지는 경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4. 현대 정치 적용

선거는 정점의 인물을 교체하지만, 전문성·조직·자원·네트워크의 구조는 상당 부분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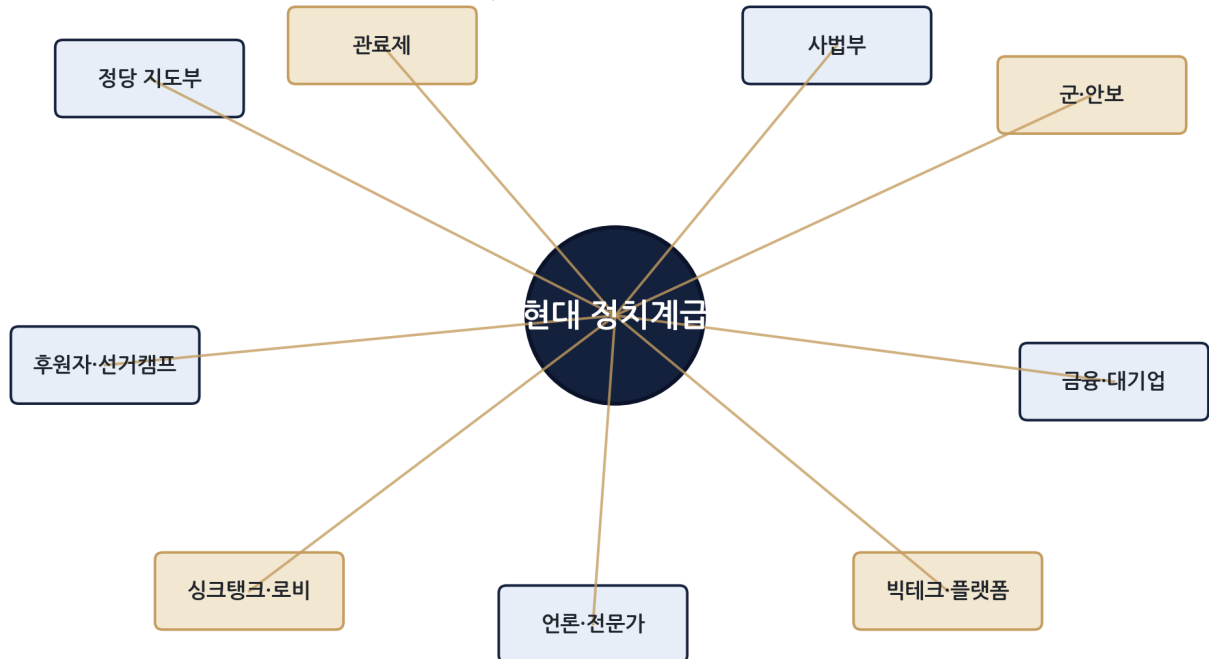


그림 5. 현대 정치계급의 생태계: 국가·자본·정보·전문성·플랫폼이 연결된 다중 중심 구조.

4.1 현대 정치계급의 구성요소

정당 지도부	공천권, 당규, 조직명부, 의제·메시지 통제	후보와 정책을 누가 사전선별하는가? 당원·유권자는 어떤 선택지만 받는가?
관료제	전문지식, 문서, 집행권, 규제정보, 지속성	선출권력의 지시를 해석·지연·재구성하는 내부 규칙은 무엇인가?
사법부·법률가	법해석, 절차통제, 독립성, 전문적 네트워크	법치의 방어자인가, 폐쇄적 법률엘리트인가? 임명·승진·사건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군부·안보조직	무력, 기밀정보, 위기전문성, 조직규율	민간통제와 전문적 자율성의 경계는 어디인가?
재벌·대기업·금융자본	투자·고용·신용·정치자금·시장인프라	경제권력이 법률·규제·인사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전환되는 통로는 무엇인가?
언론	의제설정, 평판, 정보선별, 취재원 네트워크	소유구조와 취재관행이 어떤 엘리트의 시각을 정상적 현실로 만드는가?
빅테크·플랫폼	데이터, 네트워크효과, 접근관문, 알고리즘	누가 가시성·추천·차단의 규칙을 설계하고 감사하는가?
전문가·싱크탱크	정책지식, 자격, 모델, 보고서, 인재공급	전문성이 독립적 공공재인가, 후원자의 이해를 번역하는 장치인가?
로비스트·후원자·캠프	접근권, 자금, 인맥, 선거기술	공식 선거 밖에서 누가 의제·인사·법안문구를 공급하는가?

4.2 선거로 정부가 바뀌어도 구조적 영향력이 지속되는 이유

- 조직의 시간차: 선거주기는 짧지만 관료·법원·기업·언론·대학·플랫폼의 인력과 규칙은 장기간 축적된다.
- 전문성의 비대칭: 새 정부는 기존 조직의 데이터, 법률지식, 예산기술, 국제네트워크에 의존한다.
- 인사관문의 지속: 정당, 전문직, 고위공무원단, 기업 이사회, 언론 편집국이 후보군을 선별한다.
- 자원의 집중: 자금, 광고, 소송능력, 연구역량, 정보인프라가 특정 조직에 누적된다.

- 정책의 경로의존성: 이미 체결된 계약, 법원판례, 규제절차, 국제협정, 기술시스템이 선택범위를 제한한다.
- 엘리트 순환과 회전문: 인물이 정부·기업·싱크탱크·로펌·언론 사이를 이동하며 네트워크를 보존한다.

이 지속성을 “비밀정부”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상당 부분은 복잡한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과 제도 기억에서 나온다. 문제는 지속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공개적 책임성과 경쟁적 충원을 갖는지, 특정 이해집단의 포획으로 굳어지는지이다.

4.3 미국: 경쟁적 정치계급과 조직의 연속성

실제 적용.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선거로 교체되지만, 상설 관료제, 연방법원, 군·정보기관, 중앙은행, 주정부, 로펌, 기업·금융 네트워크, 주요 언론과 싱크탱크가 정책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정당경선과 선거는 엘리트 경쟁을 확대하지만, 후보가 되려면 자금조달, 조직, 미디어, 정책인력, 법률지원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모스카의 관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은 엘리트가 없다는 데 있지 않고, 연방주의·권력분립·사법심사·언론·결사·선거가 다수의 경쟁적 권력중심을 만들어 단일 정치계급의 독점을 어렵게 한다는 데 있다.

위험. 정치자금과 로비, 규제기관·산업 간 회전문, 대형 플랫폼의 정보관문 기능이 결합하면 특정 조직된 소수가 의제 설정에서 과도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OECD는 회전문과 불투명한 기업 정치참여가 정책포획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11][12]

4.4 유럽: 관료적 전문성과 초국가적 법적 방어

실제 적용. 유럽의 다층 거버넌스에서는 회원국 정부, 의회, 법원, 중앙은행, 유럽연합 기관, 정당연합, 산업협회와 시민단체가 중첩된다. 이는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법적 방어가 된다. 반면 기술관료적 절차와 전문언어는 시민이 정책과정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모스카식 질문은 “브뤼셀의 관료가 지배한다”는 단순한 비난보다, 제안권·전문자료·협상대표·사법심사·로비 접근이 어떤 조직에 배분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대형 플랫폼의 추천시스템, 광고, 위험평가와 연구자 데이터 접근에 투명성·책임성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적 기술엘리트에 대해 규제기관·법원·시민사회·연구자가 견제력을 갖도록 하는 현대적 법적 방어로 볼 수 있다. [13][14]

4.5 한국: 국가관료·정당·재벌·언론·전문직의 교차

실제 적용. 한국의 압축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는 강한 국가관료제,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정당 지도부, 대기업집단과 금융, 검찰·법원·법률가, 주요 언론, 대학·전문가 집단이 상호의존적 권력망을 형성해 왔다. 선거는 최고권력과 정책우선순위를 실제로 바꾸지만, 규제·예산·인사·수사·재판·투자·언론의 전문조직은 장기적 연속성을 가진다. 모스카 관점에서는 “국가엘리트 대 재벌”이라는 단일 구도보다, 시기와 정책영역에 따라 누가 정보·법률·자금·인사관문을 장악하고 어떤 연합을 만드는지 분석해야 한다.

개방성과 폐쇄성. 공개채용과 선거, 교육확대는 정치계급의 사회적 충원을 넓혔지만, 학벌·지역·전문직·관료·기업·로펌의 회전문과 정당 공천의 중앙집중은 폐쇄성을 재생산할 수 있다. 사회적 불만이 커질 때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기존 엘리트를 공격하지만, 실제 통치에는 새로운 참모·미디어·온라인 커뮤니티·법률가·정책전문가라는 대항엘리트가 필요하다.

4.6 대중정당과 포퓰리즘

대중정당은 다수를 조직하여 기존 지배계급에 도전하지만, 동시에 상근당직자·공천관리자·선거전문가·후원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조직된 소수를 만든다. 포퓰리즘은 “순수한 국민 대 부패한 엘리트”라는 강력한 정치적 공식을 사용한다. 이 공식은 기존 엘리트의 폐쇄와 무책임을 폭로할 수 있지만, 지도자와 핵심참모가 국민 전체를 독점적으로 대표한다고 주장하면 법적 방어와 다원주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모스카식 평가는 포퓰리즘이 엘리트를 제거했는지 아니라, 엘리트 경쟁과 충원의 통로를 넓혔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도자 중심 정치계급으로 재집중했는지를 묻는다.

4.7 디지털 정치와 알고리즘 권력

알고리즘 엘리트.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플랫폼 경영진, 추천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콘텐츠정책팀, 광고주, 인플루언서 네트워크가 새로운 정보중개 엘리트를 형성한다. 이들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도 무엇이 보이고 확산되며 수익화되는지를 결정한다. 네트워크효과와 데이터 축적은 작은 기술조직에 거대한 사회적 조정력을 제공한다. FTC도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의 통제가 경쟁과 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 [15][16]

약화인가 재편인가. 디지털 미디어는 기존 정당·언론의 관문을 약화시키고 소규모 운동이 빠르게 조직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대중의 조직화가 플랫폼의 알고리즘, 광고시장, 계정규칙, 데이터 접근에 의존하는 순간 새로운 중앙집중이 생긴다. 결과는 “엘리트의 소멸”이 아니라 전통적 정치엘리트와 기술·미디어 엘리트의 경쟁·융합이다.

4.8 정치 양극화

양극화는 정치계급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강화한다. 한편으로 기존 중도엘리트의 타협능력과 권위가 붕괴하고 비주류 지도자가 진입한다. 다른 한편으로 강한 진영정체성은 당 지도부, 이념 미디어, 온라인 영향자에게 지지층 동원과 정보선별 권력을 준다. 정치적 공식은 “국민 대 적”, “민주주의 수호”, “국가 재건”처럼 절대화되고, 타협은 배신으로 규정된다. 법적 방어의 관점에서 위험은 경쟁의 격화 자체가 아니라, 상대 엘리트의 합법적 존재와 제도적 권리를 부정하는 데 있다.

5. 비판과 한계

5.1 학문적 공헌

권력의 사회학적 전환	헌법상 주권자보다 실제로 결정·집행하는 조직과 사람을 조사하게 만들었다.
조직의 독립적 중요성	숫자·부·이념만이 아니라 조정·규율·정보·지휘가 권력의 핵심임을 밝혔다.
정당성의 현실주의적 분석	정치적 공식을 통해 강제와 동의, 이념과 제도, 지배와 정당성의 결합을 설명했다.
엘리트 충원 문제	개방과 폐쇄, 세습과 사회이동을 체제 안정과 쇠퇴의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자유주의적 제도론	법적 방어, 사회세력의 균형, 권력분립을 엘리트 현실과 연결했다.
현대 적용 가능성	정당·관료·기업·언론·플랫폼·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언어를 제공한다.

5.2 엘리트 지배의 불가피성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다는 비판

모스카는 통치기능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강하게 일반화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 지도자와 전문가가 있다”는 명제에서 “대중의 실질적 자기통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참여예산, 주민자치, 협동조합, 시민배심, 노동자 대표, 온라인 숙의처럼 의사결정권을 분산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들 제도도 촉진자와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만, 권한의 위임·회수·순환·공개성의 정도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엘리트 존재의 보편성과 엘리트 지배의 강도·책임성은 구분해야 한다.

5.3 계급·성별·인종·식민주의의 과소설명

모스카의 조직중심 설명은 누가 조직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는다. 자산과 교육의 세습, 무급 돌봄노동, 인종적 배제, 식민지 행정, 법적 시민권의 차이는 정치계급 진입의 출발선을 만든다. 여성·소수인종·식민지 피지배자가 배제된 것은 단순히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재산권·교육·직업·폭력·법률이 조직가능성 자체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현대적 모스카 분석은 엘리트 조직을 조사하는 동시에 그 조직의 사회적 구성과 배제의 역사도 추적해야 한다.

5.4 대중운동과 집단학습의 과소평가

모스카는 대중이 조직될 때 새로운 지도층이 생긴다는 점을 정확히 포착하지만, 대중운동이 제도·정체성·권리의 범위를 바꾸는 창조적 역할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 노동운동, 민권운동, 여성참정권운동, 반식민 독립운동은 단순히 하나의 엘리트를 다른 엘리트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시민권과 정당성의 기준, 조직의 내부규칙,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확대했다. 지도층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집단적 학습과 규범 변화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

5.5 실제 민주적 참여와 책임성의 과소평가

선거와 참여가 항상 엘리트의 장식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유권자는 정권을 교체하고, 시민단체는 소송과 공개정보를 통해 정책을 바꾸며, 언론과 내부고발자는 폐쇄된 조직을 드러낸다. 달의 다원주의가 보여주듯 권력은 쟁점별로 분산될 수 있고, 한 영역의 엘리트가 다른 영역을 자동으로 지배하지 못할 수 있다. 모스카의 분석은 누가 실제 결정을 내리는지 묻는 데 강하지만, 제도가 시민의 선택을 엘리트 행동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측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5.6 개념의 모호성과 검증 문제

정치계급을 너무 넓게 정의하면 권력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반증이 어려워지고, 너무 좁게 정의하면 경제·미디어·문화 권력을 놓친다. 또한 “조직된 소수”의 경계가 공식직위인지, 실제 영향력인지, 네트워크 중심성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현대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추적, 인사 네트워크, 자금흐름, 문서·회의·로비 기록, 미디어 노출, 정책 결과를 결합해 정치계급의 범위를 경험적으로 정해야 한다.

5.7 규범적 위험: 현실주의가 냉소주의로 변할 때

“어차피 소수가 지배한다”는 명제는 권력남용을 정상화하거나 민주개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냉소주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스카의 법적 방어 개념을 함께 읽으면 반대 결론이 나온다. 엘리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욱 투명성, 분산, 충원, 경쟁, 독립적 심사,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현실주의는 규범을 버리는 이유가 아니라, 규범이 작동할 수 있는 조직적 조건을 설계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6. 종합 평가

6.1 모스카 이론의 핵심 명제 10개

1. 모든 대규모 정치사회에는 실제 통치기능을 수행하는 비교적 소수의 정치계급이 존재한다.
2. 소수의 지배력은 숫자보다 조직, 지휘, 정보, 자원, 제도적 위치에서 나온다.
3. 대중은 조직될 수 있지만, 조직되는 순간 지도자·전문가·중개자라는 새로운 소수가 생긴다.
4. 정치체제의 실질은 군주정·민주정 같은 법적 명칭보다 지배계급의 구성과 조직방식에 달려 있다.
5. 지배계급은 정치적 공식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종교·민족·국민·법·평등 같은 상위 원리와 연결한다.
6. 정치적 공식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회의 신념과 제도에 뿌리내린 정당화 체계다.
7. 지배계급은 세습·선거·관료선발·공동선발·사회운동을 통해 충원되고 재생산된다.
8. 지배계급의 과도한 폐쇄는 무능·부패·정당성 위기·대항엘리트의 성장과 급격한 붕괴를 초래한다.
9. 자유는 엘리트의 부재가 아니라 복수의 사회세력, 권력분립, 법치와 적법절차가 만드는 법적 방어에서 나온다.
10. 민주주의의 현실적 의미는 다수의 상시 직접통치보다 엘리트 경쟁, 공개적 충원, 평화적 교체, 시민의 통제 가능성에 있다.

6.2 모스카식 권력분석 체크리스트

결정권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과 실제 거부권자는 누구인가?	서명권, 예산권, 인사권, 규제권, 사건배당, 플랫폼 정책권
조직	소수는 어떻게 상시적으로 협조하는가?	회의체, 사무국, 지휘계통, 당규, 직무분장, 비공식 채널
정보	누가 먼저 알고 무엇을 비공개로 보유하는가?	데이터 접근, 보고라인, 기밀, 전문모델, 취재원
자원	행동을 지속할 돈·시간·법률·전문인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치자금, 후원, 예산, 로펌, 연구기관, 광고
인사관문	누가 후보와 후계자를 선별하는가?	공천, 임명, 승진, 자격, 이사회 추천, 채용 네트워크
사회적 구성	지배집단은 어떤 계층·지역·학교·성별·인종·직업에서 충원되는가?	경력자료, 교육배경, 자산, 가족·동문 네트워크
정치적 공식	그들은 왜 자신이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국민, 전문성, 법, 안보, 혁명, 시장, 민족, 공정의 언어
공식-현실 간극	정당화 서사와 실제 혜택·권력배분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정책수혜, 예외규정, 접근격차, 책임회피
경쟁 엘리트	대항조직은 존재하며 합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야당, 시민단체, 노조, 독립언론, 신생기업, 지방정부
충원과 이동	외부인이 진입할 통로가 실제로 열려 있는가?	공개경쟁, 경선, 임기, 순환보직, 사회이동, 장벽
법적 방어	권력자도 법과 절차에 구속되는가?	독립법원, 감사, 정보공개, 이해충돌 규칙, 항소, 적법절차
포획 위험	조직된 특수이익이 공공정책을 반복적으로 왜곡하는가?	로비 비공개, 회전문, 규제예외, 집중된 후원, 데이터 독점
성과와 책임	권력의 지속이 실제 수행능력과 책임성에 연결되는가?	정책결과, 실패 책임, 해임·교체, 공개평가
위기와 붕괴	폐쇄된 엘리트에 맞서는 대항엘리트와 새로운 공식은 무엇인가?	포퓰리즘, 혁명서사, 군사개입, 플랫폼 운동, 대규모 불신

6.3 종합 결론

모스카의 가장 강력한 통찰은 정치권력을 개인의 카리스마나 헌법의 문구가 아니라 조직된 관계로 보게 만든다는 데 있다. 정치지도자는 혼자 지배하지 않으며, 국민도 조직 없이 직접 지배하지 않는다. 실제 권력은 정당, 관료, 법원, 군, 기업, 금융, 언론, 전문가, 플랫폼이 제공하는 조직·정보·자원·정당화의 결합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통찰은 민주주의의 불가능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과제를 더 현실적으로 만든다. 질문은 “엘리트가 있는가”가 아니라 “엘리트가 얼마나 경쟁적인가, 누가 진입할 수 있는가, 대중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법이 권력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조직된 사회세력이 서로 견제하는가”이다. 모스카의 정치계급론과 법적 방어론을 함께 읽을 때, 그의 이론은 권력의 냉정한 해부와 자유주의적 제도설계를 연결하는 분석도구가 된다.

최종 평가

모스카의 이론은 현대 민주주의를 “엘리트 없는 통치”가 아니라 “경쟁하고 교체되며 법에 구속되는 엘리트의 통치”로 이해하게 한다. 이 관점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축소할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공천·관료·로비·언론·플랫폼·전문가 네트워크처럼 형식적 제도 뒤에서 실제 권력을 움직이는 구조를 드러내는 데 탁월하다.

부록 A. 핵심 용어 사전

정치계급	통치조직의 핵심 결정을 만들고 집행하는 소수 집단.
지배계급	정치적 지휘층과 이를 보조하는 행정·경제·지식·사회 엘리트의 넓은 범주.
조직된 소수	지휘, 역할분담, 정보공유, 규율을 갖춘 소수.
비조직된 다수	규모는 크지만 상시적 조정기구가 부족한 대중.
정치적 공식	지배를 도덕적·법적·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원리와 서사.
귀족적 경향	지배적 지위와 특권을 기존 구성원과 후손에게 고정하려는 경향.
민주적 경향	외부와 하층에서 새로운 인재가 지배계급으로 진입하는 경향.
법적 방어	권력의 자의성을 제한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법·절차·관습·기관의 체계.
사회세력	부, 군사력, 종교, 지식, 직업, 지역, 조직 등 정치적 영향력을 낳는 집단적 기반.
정책 포획	특정 이해집단이 공공정책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맞게 왜곡하는 현상.

부록 B. 참고문헌

[1] Mosca, Gaetano. The Ruling Class (Elementi di Scienza Politica). Trans. Hannah D. Kahn; ed. and intro. Arthur Livingston. McGraw-Hill, 1939.

[2] Bobbio, Norberto. “Gaetano Mosca and the Theory of the Ruling Class.” Banca Nazionale del Lavoro Quarterly Review, 1962.

[3] Mosca, Gaetano. Sulla teorica dei governi e sul governo parlamentare. 1884.

[4] Pareto, Vilfredo. The Mind and Society (Trattato di sociologia generale). 1916/1935.

[5] Michels, Robert.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1911/1915.

[6]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Politics as a Vocation.” 1919-1922.

[7]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The German Ideology;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arx, Capital.

[8] Gramsci, Antonio.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Writings from 1929-1935.

[9] Mills, C. Wright. The Power Elite.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Dahl, Robert A. Who Governs?. Yale University Press, 1961.

[10] OECD. Preventing Policy Capture: Integrity in Public Decision Making. 2017.

[11] OECD. Regulating Corporate Political Engagement. 2022.

[12] OECD. Corporate Influence in Competition Policymaking. 2025.

[13] European Commission.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ransparency/accountability guidance for online platforms, updated 2026.

[14] European Commission.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Search Engines under the DSA,” updated 2026.

[15] U.S. Federal Trade Commission. “Competition in the Technology Marketplace”; materials on data, platforms, and market power.

[16] U.S. Federal Trade Commission. “Generative AI Raises Competition Concerns.” 2023.

[17] Damele, Giovanni and others. “Introduction: Elite Theory - Philosophical Challenges.” Topoi, 2022.

[18] Best, Heinrich and John Higley, eds. Democratic Elitism: New Theoret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Brill, 2010.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Independent Analysis for Understanding American Power